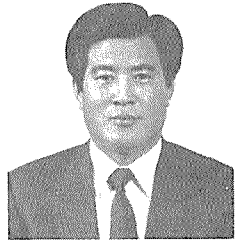


개인용 PC보급에 이은 정보통신기기 시장의 활황



김종길 / 본회 이사
(주)삼보컴퓨터 사장

올해 PC 내수 시장은 5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컴퓨터 교육의 실시와 중소기업전산화 등의 수요에 힘입어 예상한 60만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지난해의 40만대 총량보다는 높다. 그러나 지난해동안 매년 100%이상 PC 시장이 성장한 폭에 비하면 매우 둔화된 것이다.

또 전세계적인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PC수출은 30~40% 이상 감소하였고 수출에 큰 비중을 두어왔던 컴퓨터업계의 시각이 국내로 몰려지면서 내수 시장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으나 내수 시장수요가 커지면서 공급과 맞아떨어졌으며 구매의욕이 높아져 자 시장이 많이 혼탁해졌다.

무엇보다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덤핑입찰이다.

연초부터 초중고교의 컴퓨터교육 실시에 따른 입찰에서 심한 덤핑경쟁이 일기 시작, 이어지는 PC 입찰들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결국에는 PC-XT/AT는 물론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가격을 많이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시장을 더욱 부채질하

였고 시장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유통망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교육, 서비스까지 가능한 Multi Bland Shop이 탄생하였고 이들 유통망을 통한 마케팅 활동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구매자들을 목표로한 각종 홍보활동들이 왕성해졌고 특히 서비스, 교육 등 활동들이 활발해져 고객지원 마케팅에 눈뜨게 되었다.

즉 단순히 팔고마는 판매가 아니라 판매에서 교육, 서비스,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고객지원이 발생하여 서비스까지 판매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가정용 PC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주변기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저가형 도트매트릭스 프린터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지난해만해도 3백만원대를 호가하던 레이저프린터도 1백만원대의 것이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내년에는 24핀 저가형 도트매트릭스 프린터와 더 가격이 내려간 레이저프린터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모트매트릭

스 프린터가 어느 정도는 레이저프린터로 대체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도 도트매트릭스의 아성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다.

또 컴퓨터가 가정으로 많이 보급되면서 특히 그 이용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컴퓨터를 워드프로세서나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통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뎀시장이 호황을 맞이하였으며 이어 PC-FAX라는 신규시장도 형성되어 그야말로 PC 통신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진다.

덤핑입찰로 비록 컴퓨터 교육계가 얼룩진 것은 사실이나 올해 컴퓨터 업계 내수시장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업계들의 과당경쟁으로 구매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고 혼란을 주었다.

'91년에는 가격은 물론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일반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특히 업체들의 제살까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업계들의 자각과 수요자를 위한, 수요자의, 수요자에 의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